KIMNET Newsletter

Korean Inter-Missions Network, WWW.KIMNET.ORG

Vol. 1, No. 4 (Dec, 2004)

목차

1 면

권두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이영희)

2 면

세계선교동역소식

공동기도제목

3-4 면

선교 이슈

"왜 개척선교를 지향해야 하는가?"

(김요한)

5 면

KIMNET 연차총회 소식

6 면

IFMA/EFMA

2004 삼년차대회 참관기

7 면

2004 북경 리더십 포럼 참관기

(서창권)

8 면

회원단체 소식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What we are missing)

이영희 목사 (KIMNET 회장)

"선교"는 주님이 명하신 위대한 사명임에 의의를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선교기관이나 우리의 궁극적인 최후의 목적과 사명이 선교임에는 다 뜻을 모은다. 그래서 선교를 위하여 모임이 결성되고 의견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선교지를 물색하고 사람을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자금을 모으고 파송하고 관리하며 서로 협력 하고 평가하곤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지나치고 잊어버리는 요소가 있다. 그것은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 이시요 우리의 선교사역들이 그분에게 기도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모두가 다 선교의 대장령이라 할 사도행전 1 장 8 절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만 거머쥐고 동분서주할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간과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있는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너무도 중요한 반쪽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케되고 성령충만으로 권능을 덧입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이루게 된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두어야한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행 13:3)했다. 선교사를 파송하여 보내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와 인도를 구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우리는 선교의 외형적이 Hardware 만 갖추기에 급급하다 보면 정작 선교의 내용인 예수와 힘에 해당되는 Software 를 잃어버리고 선교의 껍질만 쥐고 서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는 기도 없는 선교가 얼마나 위험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치 심이 없는 선교열정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오는가를 눈으로 보고 있다. 따라 서 더 이상 기도없는 반쪽 선교, 머리와 말로만 하는 선교는 지양해야 한다. 신실한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불타 오르는 생명력있는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

누가 뭐라해도 선교의 중요성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다 하여 또는 형편과 여건 탓으로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선교의 반쪽인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Miss 한다면 우리의 선교사역은 절름발이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인 선교의 원리로 돌아가야 옳다.

<베이징 포럼 개회예배에서 말씀 전하시는 이영희 목사>

안내 세계선교동역네트웍 광고

KIMNET 뉴스레터

본 소식지는 KIMNET 을 통한 세계선교동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동역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며 연 4 회 계간지로 간행된다.

발행인: 이영희

편집인: 최일식

기술인: 타일러 고든

인쇄소: 프로 프린트

연락처

전화: 704-587-1525

이메일:Sanguk_Park @hotmail.com

팩스: 704-587-1518

주소

14830 Choate Circle

P.O.Box 7900

Charlotte, NC 28241

www.kimnet.org

후원안내

회계: 최용규 장로

이메일: ychoe2@ earthlink.net

전화: 708-448-7516

주소

Yong-Kyu Choi

11801 S. 85th Ave.

Palos Park, IL60464

2 월 확대실행위원회

일시: 2005 년 2 월 3 일(목) - 7 일(월)

장소: SIM USA (Charlotte, NC)

주제: 교회와 선교단체의 동역

외부강사: Dr. Roy King (CIU 교수), Malcom McGregor (SIM 국제총재),

Net 대표: 김경환 선교사, 김남수 목사, 김태진 장로, 박신욱 선교사, 서창권 목사, 송상철 목사, 양재관 MD, 오상철 선교사, 이상진 장로, 이성철 목사, 이영호 장로, 이영희 목사, 이현석 목사, 임승환 선교사, 임현수 목사, 전기현 장로, 전덕영 목사, 조용중 선교사, 조혜선 선교사, 황성주 목사, 황필환 목사, 호성기 목사, 홍성열 목사, Min Chung 목사, James Song 총장 등

2005 년 세계 선교지도자 포럼 및 전략회의

일시: 2005 년 10 월 3 일 (월) – 10 (월)

장소: 도미니카 공화국/큐바

주제: 한인교회의 효과적 선교사역과 사례

한국강사: 박종순 목사, 강승삼 목사, 황성주 목사, 오정현 목사, 이동원 목사, 이동휘 목사, 신동우 목사, 전병운 목사, 김종준 목사, 최복규 목사, 방지일 목사

미국강사: 김남수 목사, 박희민 목사, 이원상 목사, 이영희 목사, 임현수 목사, 호성기 목사

선교사 강사: 강원희 선교사, 김삼성 선교사, 김규동 선교사, 박신욱 선교사, 박태윤 선교사, 손중철 선교사, 신종혁 선교사, 정윤진 선교사, 정은실 선교사, 이종익 교장

교단선교부실무 대표: 김주경 선교사 (GMS 예장합동), 신방현 목사 (예장 통합 세계선교부), 이창우 목사 (기성 해외 선교부), 이은무 선교사 (GP), 한도수 선교사 (바울선교회 사무총장)

연중 항시 원고 모집

본 소식지는 년 4 회 계간지로 간행됩니다.

3 월, 6 월, 9 월, 12 월의 각 1 일자로 발행되며 여기에 필요한 원고와 기사의 마감을 그간 발행일 2 주전으로 했으나 좋은 글이 있으시면 마감일에 구애 받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집국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도제목을 보내주십시오.

본 KIMNET 소식지에 실을 기도제목을 보내주십시오. 교회와 선교단체의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응답에 감사하는 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편집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매달 11 일은

KIMNET 기도의 날

전 KIMNET 회원교회와 회원선교 단체들이 함께 한 날 기도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보내주신 기도제목을 갖고 매달 11 일 각자가 기도하는 손을 들고 무릎을 꿇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선교 동역 공동의 기도

1. 세계선교동역 (KIMNET)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지역교회 동원, 선교단체와 사역 연합, 한인 2 세 선교동원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2. 후원 교회들의 선교비전과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3. 회원 선교 단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4. 세계 각지의 한인 선교사들을 위해

5. 새로운 세계에 걸맞는 선교패러다임과 정책을 한국인들이 주도적으로 전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6. 미국,캐나다,한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

선교이슈

왜 개척선교를 지향하여야 하는가?

한국의 선교 위상을 위한 제안

김요한[1]

사실, 선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출발점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이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토록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현을 이루어 가셨는지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선교는 자체가 잊혀진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느새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하나의 학문적인 영역으로 혹은 자기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장으로서 전락할 수도 있다.

개척 정신을 요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는 1792 년도에 잊혀져가는 영혼에 대한 불타는 소명을 가지고 미지의 개척지 인도에 몸을 던졌다.

1865 년도에 허드슨 테일러는 그 당시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중국 내륙에 잊혀져가는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였다. 이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선교의 거장으로 이름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잊혀져가는 영혼에 대한 마음과 사도행전적인 개척자로서 그 뜨거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에, 과연 이 포스트모던 시대에도 개척자 정신이 필요하며 잊혀져 가는 영혼들이 남아 있는 미지의 세계가 있는가?

현대선교의 상황적 이해

2 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사회는 냉전 이데올로기가 무너져 내려가면서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졌고 근대사회는 탈 근대사회 (포스트모던 사회)로 변화하였다. 토마스 쿤 같은 물리학자는 객관적 이라고 취급하는 자연과학적 결과도 시대적인 사상 및 사물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은 선교를 감당해온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첫째로, 이전에는 자립 (self-supporting), 자치 (self-governing), 자전 (self-propagating)을 강조하여 소위 토착화 (Indigenization)에 중점을 둔 선교에서, 새로운 "self"인 자신학화 (self-theologizing)의 강조와 함께 상황화 (contextualization)가 선교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둘째로. 북반구를 중심한 서구를 대표하던 기독교가 그 무게중심이 남반부를 대표하는 2/3 세계로 옮겨졌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2/3 세계 출신의 기독교 리더들과 선교사들의 세계교회와 선교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이 증대될 것을 이야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서구와 2/3 세계가 온전한 동반자로서 세계선교를 이끌어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셋째, 가히 통신/교통의 혁명을 이룬 현대 과학기술은, 세계화라는 새로운 물결을 형성하도록 일조하는 바, 복음전도에 있어서도 폭발적인 대중성이 이용되고 있다.

넷째, 이러한 변화와 추세 속에, 각 나라와 민족, 그리고 다른 종교 체계나 사상들이 우후죽순처럼 새로운 도약과 발흥을 시도하는 것 또한 하나의 추세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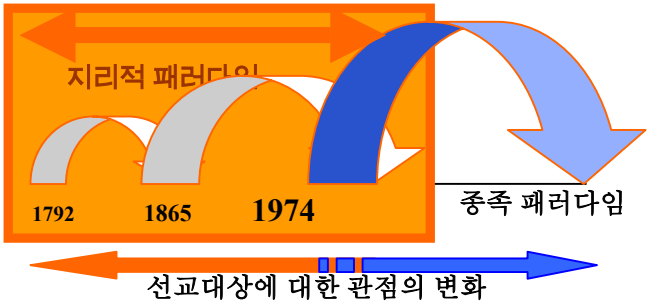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선교 포커스인 개척선교는 무엇이며 우리의 위상은 무엇일까?

랄프 윈터 박사는 1974 년도 로잔대회에서 미전도 종족(Unreached People Group)들에 대한 절대적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는 개신교 선교 역사의 큰 틀을 세 시대로 나누었는데, 윌리엄 캐리 이후의 해안선교시대, 허드슨 테일러 이후의 내지선교시대, 그리고 도날드 맥가브란, 윌리암 타운젠트, 랄프 윈터 등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개척선교의 물꼬를 이룬, 미전도 종족 선교시대가 바로 그것이다.

해안선교시대에서 내지선교시대로의 전환은 같은 패러다임에서 가능하지만 내지선교시대에서 미전도

[1] 김요한은 국제 OMF 선교사로 무슬림사역필드 전략코디네이터 및 실행위원으로 1994년 이후 인도네시아 D-족 가운데에서 사역해오고 있다. 물리학 박사이기도 하다. 이 글은 지난 11월17-19일 KWMA 와 한기총이 공동주최한 제 4회 한국선교사 지도자 포럼에서도 발표된 내용이다.

종족선교시대로의 전환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기존 선교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새로운 선교의 흐름을 이해할 수도 거기에 동참할 수도 없다. 윌리엄 캐리와 허드슨 테일러 시대에 행하여졌던 개척적인 사역의 형태는 이제는 더 이상 개척적일 수 없다.



전영혼에 대한 선교 → 전민족에 대한 선교

<세계선교역사에 나타난 패러다임의 변화>

어떤 한국 사역자들은, 서구 선교사들이 떠난 자리를 이제 우리가 메워나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서구 선교사들이 과연 선교의 열정이 식어서 그 자리를 떠나는지 아니면 퇴색한 선교지에서 지속적인 자원의 낭비와 실패의 반복을 피하여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서 떠나는지는 조심스럽게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제 파송된 선교사 숫자로 세계 2 위의 선교대국인 우리나라가 그 선교위상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심각하게 질문할 때이다. 잊혀진 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는 미전도종족들 가운데에 자신의 옛 자리를 털고 새롭게 나가고자 몸부림치는 서구 선교계와 동등한 동반자로서,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한 진정한 개척자로 나아가야 할 지, 아니면 그들이 남기고 떠나간 옛 자리를 채워나가야 할지, 곰곰히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선교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필자는 우선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해 본다.

실제적 제안

첫째,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새 패러다임에 따른 선교모델들이 부단히 개발되어야 한다.

이렇게 개발된 모델들은 실제적인 사역의 현장과 동원 및 훈련에 직접 적용되어야 하며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교 단체간의 연합과 네트웍이 필요하다. 먼저, 개척선교를 지향하는 국제 단체들과의 네트웍이 필요하고, 한국 단체들간에 개척선교를 지향하는 네트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네트웍은 실제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네트웍이 되어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2]

둘째, 이제는 선교를 일반에 알리는 동원 차원의 이벤트성 대회보다는, 실제적인 선교 전략 회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전략회의는 선교 실무 행정가들과 필드의 사역자들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적인 연대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연대 속에서 우리가 개발한 사역의 모델들도 소개되어야 진정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실제적으로 사역의 목표를 개척선교에 두지 않은 단체라 할지라도, 개척선교부를 두고 네트웍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전통적인 사역의 한계 가운데에 스스로를 가두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서구의 많은 기성 선교단체들은 두 패러다임 가운데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새로운 변혁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는 과감하게 개척사역들을 선점해 나갈 용기가 필요하다.

넷째, 선교의 동원과 훈련 또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가운데에서 재 정립되어야 한다.

랄프 윈터 박사는 선교교육에 대하여,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선교현장의 필요에 맞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그 선교현장은 바로 개척사역의 현장을 이야기한다.

ISFM

(International Society for Frontier Missiology)

ISFM 은 1986 년 9 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15 개 북미선교단체가 교회개척에 중점을 둔 전방선교의 기회와 필요성에 대한 전략회의를 갖던 중 출범했다. 설립멤버들은 ISFM 이 "미완료된 대사명의 성취를 위해 국제적인 범위에서 개척선교학 분야에 관심과 논의을 일으키고 정보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SFM 은 Dr. Ralph Winter 가 편집인으로 있는 IJFM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2] 필자는 개척선교를 위한 국제연구네트웍을 위하여 ISFM(International Society for Frontier Missiology)과 공조하고 있다. (관심자 연락처: john_yoon@psmail.net)

2004 KIMNET 연차총회 소식

2004 년 KIMNET 연차총회가 지난 9 월 23 일 미드웨스트 신학교(총장: James Song 박사)내 위치한 정진경 세계선교센터에서 열렸다. 2002 년 창립총회 이래로 이번 연차총회는 2 회째되었다.

컨퍼런스 룸에서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정진경 세계선교센터로 자리를 옮겨 호성기 목사(필라안디옥교회 담임, PGM 이사장)의 "선교특강: 선교의 전문인력 활용"이 진행된 후 같은 장소에서 연차총회가 계속되었다.

특별히 이번 연차총회에는 KIMNET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사무국장과 회계로 각각 수고한 이현석 목사와 최상득 장로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다음은 이번 연차총회의 특색 중에 하나인 공식 회의 폐회 후 허심탄회한 오픈 포럼의 내용이다.

KIMNET OPEN FORUM

KIMNET 의 발전을 위한 길 모색

1. 목적에 충실한 기구가 되어야 한다. (KIMNET 의 목적 재천명)

1) 북미주의 한인교회들을 선교에 동참시킨다
2) 수많은 선교단체가 연합할 수 있게 한다.
3) 2 세들을 동원한다.

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1) 자연스런 Networking 을 통하여 선교기관들이 서로가 서로를 facilitate, 즉 격려하고 사역을 도모하고 촉진시킨다

2) 결국 지역교회와 목회자들을 깨워야 한다

-많은 지역교회들이 아직도 선교에 적극 동참하 지 않고 있다

-대략 이민 교회중 10% 정도만이 선교에 적극적이다.
-담임 목사들이 선교지향적이 되지 못하면 평신도 가 아무리 선교기관을 통하여 훈련을 받았다 해도 선교에 투입되지 못한다

-KIMNET 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 부 분일 것이다. 지역별로 선교각성이 일도록 지역교회와 목회자를 깨우는 일이다

3) 2 세들의 현황은 선교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어디를 통하여 하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이다. 2 세들을 1 세들과 링크시키는 전략이 필요 하다.

4) 2 세들이 선교에 헌신하여도 가지못하는 이유는 첫째가 부모의 반대이요, 둘째가 공부하는 중에 받은 loan 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

5)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지역교회에 서 1 세와 2 세의 건전한 관계구축의 전략이 필요하다.

-시카고에 있는 Alliance Fellowship Church 처럼'family mission'을 통하여 가족들 단위로 선교를 실시하면 자연히 2 세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Antioch Church 처럼 'OICC 선교', 즉 영어목회부와 한어부가 함께 선교를 기획, 훈련, 실시할 경우 자연스럽게 2 세들을 선교지향적으로 인도하면서 개 교회안 에서 personal relationship 과 mentoring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2 세들을 선교에 동참 시킬수 있다.

-OMKAM 의 'Mission Perspective'를 통한 가장 큰 열매중의 하나는 1 세들이 2 세들을 선교사로 보내겠다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뉴욕순복음 교회의 경우처럼 1 개 교구가 중남미의 한 나라씩을 맡아 학교를 세우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장기선교를 실시할 경우 모든 평신도가 선교에 직접 동참할 수가 있게 된다. 내년에는 이 교회의 선교의 현장을 도미니카 KIMNET 대회를 통하여 체험할수 있을것이다.

3. 결론

KIMNET 은 지역교회와 목회자들을 선교지향적인 교회와 사역자로 깨우는 사역을 감당하여야 한다. KWMC 같은 선교기구가 일일이 다 하지 못하는 follow up 의 사역을 치밀하게 펼쳐나가야 할것이다. 그래서 KWMC 와 대립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선교기구로서 많은 선교 기관들과의 구체적인 networking 을 통하여 1 세뿐만이 아닌 2 세들과 차세대들에게 선교의 길라잡이가 되고 촉진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비젼의 첨예화를 이루어 가야 할것이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분명 이 세대에 꼭 필요한 선교기관으로서의 분명한 사명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감당하여 나갈 줄로 확신한다.

새 선교는 새 선교 패러다임에

지난 9 월 23-25 일 St. Louis (MO)의 St. Louis Airport Marriot Hotel 에서 개최된 IFMA/EFMA/EMS 의 삼년차 대회(Triennial)에 다녀왔다.

북미에는 양대 선교단체 연합회 가 존재한다. 1917 년 초교파선교단체의 연합으로 시작된 Interdenominational Foreign Mission Association (IFMA)와 1947 년 교단 선교부들의 연합으로 창립된 The Evangelical Fellowship of Mission Agencies (EFMA)가 그 두 연합회이다.

Since 1917 the IFMA has existed to strengthen mission agencies by upholding standards of operation, assuring integrity and cooperative resourcing to spread the gospel.

IFMA

Symbol of Integrity

EFMA EVANGELICAL FELLOWSHIP OF MISSION AGENCIES

이 두 선교연합회는 매년 각자의 연차총회를 가지다가 3 년마다 함께 모여 선교의 상황과 이슈, 정책과 정보를 교환한다.

복음주의 선교 신학자들의 연합회인 EMS (Evangelical Missiological Society)는 매년 IFMA 와 함께 연차총회를 갖고 3 년마다 역시 EFMA 와 연합한다.

2004 년 올해 삼년차 대회의 주제는 "혼합주의 세계에 있어 타협 없는 리더십에의 의존" (Depending on Uncompromising Leadership in a Syncretistic World)로 RREACH 선교회의 대표이자 달라스 신학교 교수인 Dr. Ramesh Richard 가 주강사로 나섰고 저녁집회는 무디 신학교 총장인 Dr. Joseph M. Stowell, III 가 인도했다.

두 가지 모든 선교에 일반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첫째는 ReMAP II Project이다. 이는 WEA (세계복음주의자연맹)에서 후원한 선교사 유지 보존에 관한 연구로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Dr. James Van Meter와 연구결과를 편집해 실었던 WEA의 선교 잡지인 Connection의 편집장인 Dr. William D. Taylor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계속 있는 경우와 후퇴하는 경우의 원인과 결과, 예방과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조사 발표 내용의 전문은 http: //www. globalmission.org/wef/connections.htm 에 있다.

둘째 이슈는 21 세기 세계기독교의 현황에 대한 통계이다. 여기에 대해선 고든-콘웰 신대원 부설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의 대표인 Dr. Todd M. Johnson이 발표했는데 특별히 포스트모던 사회의 선교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통계자료를 통해 부각시켰으며 복음에 "적대적인 곳"이라고 알려진 지역이 오히려 "추수지역" 보다 더 반응이 좋은 곳이라는 주목할 만한 결과를 실질적 통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이 자료역시 www.globalchristianity.org 에 가서 검색할 수 있다. 이 데이터 베이스는 특히 세계 어느 지역, 민족, 언어이든지 현재 선교현황과 교회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으며 매년 새롭게 이 자료가 갱신되고 있어 선교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World Christian Database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이 밖에도 선교현장과 선교학계의 이슈들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각 강의시간마다 넘쳐 났다.

특별히 주목되었던 것은 이 대회 시작 직전에 시작되어 함께했던 ISFM (International Society for Frontier Missiology)의 쟁점이기도 했던 내부자 운동 (Insider Movement)에 대한 Dr. David Garrison (남침례회 IMB 국제정책 부총재)의 발표가 두차례 있었다. 교회개척운동 (CPM)과 내부자운동을 연관 지어 보고 했으며 참석자들 사이에 상반된 평가들 이 있어 앞으로 계속 주목되는 사안이었다.

Dr. Robert Priest 의 선교지에서 외국선교기금의 분배와 흐름이 현지 교회의 자립과 상황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교사 경험이 있는 북미 선교신학자 128 인의 응답을 토대로 한 계량적 리서치가 낳은 주목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즉 현지지역교회 지도자들 의견의 반영 없이 외부인의 시각과 판단에 알맞은 사람과 장소에 선교기금을 "투자"할 경우 지역교회의 자립도가 약해지고 교회 운영과 신학을 외부선교사나 외국 교회에 눈치를 보게 되어 그 나라와 민족에 맞는 상황화 된 신학과 교회운영 어렵게 된다는 결과였다. 이는 선교사가 자신의 방식대로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생기는 현상이어서 매우 주목된다. (향후 출판예정)

이번 대회는 특히 20 세기 세계선교와 선교학을 지도하던 거장들의 명예로운 퇴장과 노년의 헌신이 눈에 띄는 자리였다. EMS 에서는 Dr. David Hasselgraves 가 명예롭게 공로패를 받으며 은퇴했고 노년의 Dr. J.D.Woodberry 는 혼신의 강의를 했으며 또 Dr. Ralph Winter 는 계속된 선교를 위한 제안들을 내놓았다.

과연 누가 이들을 이어 다음 세대의 세계 선교와 세계 선교학을 이끌어 갈 것인가? 세계 여러나라에 있는 한민족과 한인교회 들은 서구선교의 뒤를 따라가며 숫자만 채울 것인가 아니 면 기독교가 비서구종교가 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패러다임과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 해 보게 됐다.

서창권 목사(시카고한인교회 담임목사)

중국이여, 모택동 대신 예수를!

중국을 처음 방문하는 길이라 상당히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카고에서 중국행 직항비행기에 탑승하여 약 12 시간 만에 북경공항에 도착하였다.

10 월 26 일(화) 오후에 도착하여 잠시 여장을 푼 후 5 시부터 개회예배를 드리면서 곧바로 포럼이 시작되었다. 금번 포럼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는 중국선교의 현재와 미래, 둘째는 차세대 리더십이었다. 중국선교에 대해서는 주로 10 년 이상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중국내 한인교회의 목사님들이 발표하였다. 차세대 리더십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과 선교지에서 청소년 및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발표하였다.

<패널토의 장면>

포럼의 의의를 정리해 본다. 첫째, 중국선교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3 억의 인구와 광대한 대륙,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세계선교에서 중국을 빼놓을 수 없다. 복음의 서진(西進)을 위해 중국교회가 그 마지막 사명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둘째, 중국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책임을 절감하였다. 지난 10 여년 동안 한국교회가 중국선교를 위해 많은 일을 하였지만, 지금이야말로 더욱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임을 다 함께 공감하였다.

<21 세기교회에서의 포럼결과 발표>

셋째, 차세대 지도자 양성이 시급한 역사적 과제임을 인식하였다. 한국 내 차세대 지도자 양성은 한국 교회가 계속 성장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역이다. 아울러 선교 지역에서의 차세대 지도자 양성도 매우 중요하며 긴급한 사역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중국내 한인들을 위한 한인교회의 건전한 성장과 중국 선교 기여 가능성 확인도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밤 11 시까지 빽빽하게 짜여진 일정 중에도 자금성, 천안문, 만리장성 관광, 로사차관 중국전통공연 관람 등을 통해 중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최측은 세심하게 배려하였다. 이 점은 현지 포럼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문화탐방 중 자금성 앞에서>

끝으로, 참가자들의 숙식과 포럼 경비 일체를 담당한 국제사랑의 봉사단과 빈틈없이 포럼을 진행한 이롬 라이프 북경주재 김호태 본부장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북경 21 세기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포럼을 마치고 참가자 일동>

2005 년 세계선교지도자 포럼 및 전략회의는 도미니카 공화국/큐바에서 10 월 3(월)-10 일(월)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 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회원선교 단체 소식

SEED International

새회계년도를 시작하여 본부 스탭수련회가 10 월 23-24 일 사이에 와싱톤 중앙장로교회 컬페퍼 기도의 집에서 열렸다. 첫날 저녁예배에서 이원상 목사는 사도행전 13 장, 15 장의 마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SEED 선교회의 회복을 위해 도전의 말씀을 선포했다. 예배 후 모두 네 조로 나누어 참가한 본부스탭들과 봉사를 위해 오신 권사님들은 선교사들의 명단을 가지고 1 시간 이상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주일 새벽기도회, 주일예배, 오후 스탭회의, 저녁 스탭회의로 진행된 금번 스탭 수련회에서는 지난 회계년도 사업보고, 결산보고와 새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가 있었다. 한편 선교회의 정책과 규정 보완과 매뉴얼출판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

OMKAM

오는 11 월 8 일부터 11 월 14 일까지(7 일간),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당 (정책이사 정인수 목사)에서 제 11 기 MP 세미나가 열렸다.

50 명의 수강생 등록을 목표로하는 이번 애틀랜타 세미나 강사진은, 서삼정 목사 (제일장로교회), 정인수 목사 (연합장로교회), 김정호 목사 (애틀랜타한인교회), 정홍주 (후안 정) 멕시코선교사 (오엠 캠 협력선교사), 김경환 선교사 (오엠 캠 대표),그리고 미국인으로 한국에서 30 여년간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인도아 선교사, 역시 한국선교사역 7 년 경험의 매이젼 선교사 등이다.

SIM KOREA

지난 11 월 4 일 목요일 오후 3 시에 한국 SIM 국제 선교회 설립 7 주년을 맞이 하여 SIM 국제 본부지원으로 새 사무실을 분당에 마련하였다.

<한국 SIM 사무실 헌당감사예배 후>

이디오피아 명성 메디컬 센터 (MCM) 개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에서 에디오피아에 건립한 명성 메디컬센터와 국제 SIM 간의 선교협력협정이 오는 11 월 25 일 에디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체결 된다.

한편 명성메디컬센터 (MCM)는 11 월 25 일 14:30 메디컬센터 잔디밭에서 이디오피아 정부 관계자와 이디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그리고 현지 교단관계자와 한국, 미주 한인 관계자등 1300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예배를 드린다.

KIMNET 에서는 김남수 목사, 김승희 목사, 박희민 목사, 이영호 장로, 정인수 목사, 최일식 목사 등이 개원행사 순서에 참여한다.

<조경공사 전의 Myung-Sung Christian Medical Center >

GFA

현지인 선교사 (Native Missionary)를 발굴, 교육, 파송, 후원하는 K.P. Yohanan 이 설립한 GFA (Gospel for Asia)는 그간 한국에 지부가 없다가 지난 9 월에 지부가 설립되었다. (미주한인지부장: 임승환 목사)

Wycliffe

그 동안 Wycliffe 선교회의 한인 담당으로 수고하셨던 Sunny Hong 선교사가 다른 일을 맡아 이임하게 되었다.

COME

COME 선교회 (미주대표: 이재환선교사)의 웹사이트에 가면 주간 무릎 한장 기도지를 받아 기도할 수 있다. http://www.m2414.org/open.php?page=mission3.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로 자료가 준비 되어있다.

KODIM

GPN 을 담당하시던 오상철 목사는 KODIM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를 1 년 2 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지난 11 월 1-3 일에 창립총회를 L.A.의 미라클 팜 스프링에서 개최하였다. 미 전역에서 10 분의 목사들이 참여하였다.